

22사단 장병 농촌일손돕기 ‘천군만마’

4월 중순부터 60개 농가에 400여명 지원 ... 농가에 부담주지 않기 위해 식사 자체 해결

고성군 주둔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매년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해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사고 있다.

22사단은 지난 4월 중순부터 60여개의 농가에 장병 400여명을 투입해 모판 흙덮기, 못자리 물내기과 같은 모내기 준비작업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사일들을 척척 해내고 있다.

장병들은 우선적으로 보훈가족과 노약자 및 부녀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식사를 부대에서 차량으로 이동시켜 먹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농번기를 맞았지만 대부분이

고령층인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일손을 구해도 하루 임금이 부담스러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차에 장병들이 대민지원에 나서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매년 이맘때면 농사일을 도와주는 장병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장병들이 든직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민지원에 참여한 조형준 하사(25세)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호 기자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매년 농번기 때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해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사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 조성”

속초해경, 고성군 등 4개 자치단체와 합동 회의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올 여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의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ZERO)를 위해 지난 23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성군을 비롯해 속초시, 강릉시, 양양군 등 4개 자치단체 관계자와 한국해양구조대 등 민간단체 업무담당자 등 21명이 참석해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점검, 구조장비 운용상의 문제점 보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23일 속초해경 주관으로 열린 동해안 피서객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

속초해경 관할 해수욕장은 총 51개로 지난해 동해안 북부지역의 해변을 찾은 물놀이객은 1,100만명이었다. 최광호 기자

외국인 선원 한글교육 보고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제3차 이사회 개최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근성)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및 기타 전달 사항순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고성군 채낚기어선 인도네시아 선원 24명의 외국인 선원 한글 교육 종료 및 경동대 협약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보고에서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아이/우리교사 현장체험학습과 제4회 학사발표회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복 가득한 DAY(여성발전기금)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제3회 사회공헌유치 역량강화 워크숍인 임직원 연수 및 일본 연수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사퇴해 공석이 된 사무국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 24일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삼포코레스코 사우나서 화재 발생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자세한 화재원인은 조사중이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소방서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펼치는 모습.

지난 26일 오후 4시 15분께 고성군 죽왕면 소재 삼포코레스코 사우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자세한 화재원인은 조사중이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소방서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펼치는 모습. 박승근 기자

기사제보 ☎681-1666

구독문의 ☎681-1667